

“지역과 상생·동행의 가치로 광주은행 100년 초석 다질 것”

송중욱 은행장 취임 5주년 기자회견담화



취임 후 5년간 수익·성장·기업가치 대폭 신장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 지역 밀착 경영 최선

“광주은행 은행장으로 일한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고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보탬이 된 건 자행 출신으로서 더없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경영이념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지역민들이 함께 지켜봐 주길 바랍니다.”

자행 출신으로는 처음 광주은행장에 선임된 송중욱(60·사진) 은행장이 취임 5주년을 맞아 21일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송 은행장은 지난 2017년 9월 은행장에 선임된 뒤 5년 사이 당기순이익이 46.3% 증가하는 등 해마다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같은 기간 수신은 약 5조원, 대출은 약 3조원 증가하며 영업자산도 눈에 띄게 늘었다. 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지역은행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행원 시절 ‘영업왕’ 자격을 거머쥔 송 은행장은 지역민과 1700여 임직원이 은행의 질적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려온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성원을 보낸 지역민과 고객에 감사로 전하며 취임 5주년 소회를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활동 고객’은 123만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6월(94만명)보다 30.9%(29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활동이 왕성한 주요 고객(VIP)은 5년 전보다 31.0%(3만5000명) 늘어난 14만6000명을 확보했다.

송 은행장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과 디지털 금융 가속화 등 변수 속에서도 광주은행은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지역밀착 경영과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 포용금융을 실천해 왔다”며 “내실 있는 질적 성장과 체질 개선을 통해 탄탄한 기초체력을 키워온 덕분에 광주은행은 앞으로 광주·전남 대표은행을 넘어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로 나아가 수 있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올 하반기 광주·전남 영업기반을 확고히 하고 지역밀착경영과 디지털 영업 강화,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광주은행의 중점 추진전략 중심에는 ‘현장 중심 지역밀착 경영 강화’, ‘중소기업·자영업자·중서민 지원 강화’, ‘디지털 전략 추진’, ‘해외시장 개척’ 등이 있다.

고객 중심 밀착경영의 성적표는 은행장 취임 후 5년 연속 유지하고 있는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성과이다.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1만2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 광주은행은 다른 지역은행인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을 제치고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59년 만에 목포시 1급도 담당을 꺾으면서 전남 5대 시(市) 지역 금고를 유치했고 광주시와 5개 구(區) 금고도 석권하면서 공공금고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자체 자금을 편성해 1조3944억원(3만897건)에 달하는 대출 지원을 벌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에는 최근 5년간 162억원을 출연하며 소상공인 송통을 띄게 했다.

지난 2019년 11월 광주은행 옛 본점 자리인 총장로 57에 문 연 포용금융센터는 배랑 끝에 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1482건에 걸쳐 3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포용금융센터를 찾은 680명에게는 맞춤형 경영 상담을 벌여 26억원(150건) 상당 대출을 연계하기도 했다.

지역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광주은행은 디지털 금융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지난달에는 혁신금융으로 꼽히는 ‘토스’ 운영사 ㈜비리퍼블리카에 200억원을 투자하며 디지털 금융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디지털금융센터를 신설한 뒤 반년 동안 디지털금융센터 영업자산은 ‘두 자릿수’ 증가(수신 36.3%·여신 67.2%)를 나타냈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은행이 인수한 베트남 증권사 JBSV는 지난해 6월 흑자 전환한 뒤 올해 6월 말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억7000만

원 증가하기도 했다.

송 은행장은 ‘100년 은행’을 향한 광주은행의 청사진으로 ‘뿌리 깊은 항토은행’ ‘기초체력이 강한 은행’ ‘지역민과 상생·발전하는 은행’ 등을 들었다.

“광주·전남 기반을 다지고 자본의 역의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금고 유치에 힘쓰고 지역별 특화 공익 상품을 활성화해 지역밀착경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금융 디지털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고객별 맞춤 영업으로 기초체력을 다지겠습니다. 소외되는 금융 소비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용회복과 중금리 대출 등을 폭넓게 도입하며 지역은행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해마다 사회환원에 쓰는 광주은행의 행보를 더욱 넓혀 기업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송중욱 은행장은 순천고와 전남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은행에 입행했다.

금호동지점장과 서울지점장, 광주은행 수도권 영업 부행장, 광주은행 영업총괄 부행장을 거쳐 탁월한 영업성과와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다.

“행원에서 은행장까지 꿈꿀 수 있는 광주은행만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송프로’라 이름 붙여 직접감, 지역별 직원들과 소통 행보를 견고하고 있다.

MZ 세대 직원들과 대화 기회를 넓히고 ‘다독다독 소통광장’, ‘CEO 영업보고’ 등의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무역적자 ‘역대 최대’ 전망...IMF 때보다 심각

전경련 조사 “281억7000만달러...내년 2월 즈음 적자 기조 끝날 듯”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및 환율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81억7000만 달러로, 원·달러 환율 최고가는 1422.7원으로 전망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는 이달 6~15일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 달러 적자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33억 달러 적자를 상회하는 수치로, 195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전경련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3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는 응답률도 40.0%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53.3%는 무역수지 적자 폭 정점을 지난달로 보는 등 10명 중 9명(86.7%)은 올해 11월

내로 무역적자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이 적자 기조가 끝나는 시점을 내년 2월 초반으로 예상해 향후 5~6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응답자들은 상반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최대치인 2021년 644억 달러를 상회하는 69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수출산업의 최대 위협요인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60.0%가 ‘글로벌 경기 부진’을 꼽았고,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예보’(26.7%), ‘원자재가격 상승’(13.3%)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15대 수출 품목 중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었다.

컴퓨터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과 소비 부진, 반도체는 글로벌 수요 둔화에

제고 과잉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지목됐다.

무선통신기기는 코로나19 호황의 기저효과, 애플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수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 품목은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제품 등이었다.

자동차는 상반기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에 따른 수출 확대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개선이 수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됐다.

또 이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확대와 정책적 지원으로, 석유제품은 고유가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가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은 향후 최고가를 평균 1422.7원으로 예상했다.

고환율 지속 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 66.7%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 환율로 인한 비용부담’을 꼽았다.

/연합뉴스



농업인 희망동행 농협지산관리회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노명호맨 오른쪽)는 21일 화순군 반곡리1구 마을회관에서 ‘농축협과 함께하는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를 열고 농업인 신용회복에 기여한 농주농협 관할 지역 마을에 벽걸이 TV와 생필품을 지원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

국세청, 내년 1월까지 국세행정 역량강화 계획 발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 내년 1월까지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 및 세무조사 운영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달 발표한 ‘국세행정 역량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경제 지원, 납세 불편 해소, 과세 투명성 강화, 조직문화 등 4대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1월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세무조사는 1만4000여건 진행하기로 했

다. 이는 2015~2019년 연평균 조사 건수(1만6603건)를 15% 상당 밀도는 수치로, 이대로 진행되면 국세청의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중 정기 조사 비중을 63%까지 높이고, 간편 조사도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간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회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또 과세 전 검증과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과세 품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원별 평가 상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하위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안심전환대출 ‘시들’? 접수 4일차 1만771건 신청

공급 규모 25조원의 4% 수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4일 차까지 1조104억원어치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 날까지 4차례일간 1만771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1조104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4%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5520건(5363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 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5251건

(4741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공금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

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2’와 ‘7’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공금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금호타이어는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 ‘All-ways, go with you’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교육은 초등학교 7대 의무 안전교육 중 ‘교통안전교육’에 해당한다. 참여 학생들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워크북을 활용해 이론 학습을 한다.

교육내용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교육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어린이들은 제공 받은 로드맵과 스티커북을 활용해 ‘안전한 학교가는 길’ 꾸미

기 활동을 하고 교통안전 수칙 골든벨 퀴즈 풀이를 하며 흥미롭게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다.

올해 3년째 진행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난 4월부터 오

는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1학기에 총 10개 초등학교, 3078명의 학생이 교육을 수료했다. 2학기 참여학교는 계속해 모집중이며, 약 900명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교육을 수료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정보문진원 30일까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 VR·AR제작 거점센터 운영사업을 통해 ‘수요맞춤형 실감콘텐츠 융합아카데미’ 교육생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요맞춤형 실감콘텐츠 융합 아카데미’는 융합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전남도 가상융합현실(XR)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현장실습교육 총 3개의 과정으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지원한다. 상세 교육내용으로는 직무진단검사 및 멘토링, 메타버스 제작 실무교육, VR영상 제작 및 편집, 웹퍼블리싱 교육, 3DDI디자인교육, 취·창업 컨설팅, 기업 현장실습 등이다. 현장실습교육은 기

본, 심화 교육과정 수요생 중 희망자를 선발해 기업 매칭 후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신청은 전남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신청서는 구글 폼 링크(https://forms.gle/AvvkB8RLaotvrdNF8)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7.21(-20.64)
↓ 코스닥	754.89(-5.46)
↑ 금리(국고채 3년)	3.847(+0.024)
↑ 환율(USD)	1394.20(+4.70)